

전쟁에 필요한 물의 가치

기고

배 경 루
육군공병학교
전문군무경력관 기군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섭취 없이 3주를 버틸 수 없다는 ‘인간생존한계 3-3-3 법칙’이 있을 만큼, 물은 생존과 직결된다. 재해재난 현장의 기적 같은 생환을 제외하고, 이보다 더 열악한 전쟁상황에 처하는 군인도 이 법칙에서 예외될 수 없다. 특히, 전쟁이라는 다영역 활동은 식수 외에도 위생, 의료, 제독 등 많은 양의 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8%. 거의 모든 군 시설에 정수기가 설치돼 있다. 해외 파병지조차 생수가 원활히 보급돼 평시 우리 군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한다. 전쟁이 일어나도 담수를 끊어 먹는 등 제한적으로 버티면 이내 기반 시설이 복구되리라 생각하는 이도 상당수다. 하지만, 과거 전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6·25전쟁 시, 우리 군은 우물이나 계곡 등에서 쉽게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 8군 사후검토 자료를 보면 전투지역 내 급수원은 모두 오염돼 화학적 정수처리 없이 식수로 활용 불가능했다는 기록이 있다. 걸프전의 경우, 지상군 51만 명의 식수 지원을 위해 유조선 50척분, 약 51억L를 공급하며 ‘군수단의 지옥’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육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위협, 인구절벽, 현존전력의 불완전성이라는 도전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로 전시 환경오염원은 증가하고, 활용 가능한 수원지는 부족해질 것이다. 인구절벽에 의한 부대 수 감축은 책임 지역과 지속지원 거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군이 보유한 정수 장비는 상당 부분 노후화됐다. 예비전력 포함 360만여 명에게 소요되는 식수만 공급하기에도 부족한 전력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런 제한사항을 해결하려면 기반시설 긴급복구, 대규모 급수원 개발 등 지속지원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수 장비 모델이 신속시범사업으로 생산돼 올해부터 육군공병학교와 육군 21사단에서 군사적 활용성을 검토 중이다. 해당 장비는 전시 오염원을 고려 화생방 작용제 오염수 처리 능력은 물론 제한적으로 바닷물 처리가 가능하다. 작전성 향상 및 병력감축을 고려해 내장형 발전기 탑재, 물리적·화역 전동 리프트, 유사시 발전기 가동 없이도 가동하도록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탑재돼 있다.

미래전은 전장 영역의 확대, 하이브리드전, 첨단 무기체계 출현 등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의 발전을 위해 전쟁에 쓰이는 ‘물의 가치’를 바로 알고,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고경국(직대)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봉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디지털취재팀	02-2079-3730-42	군947-3730-42
디지털기획팀	디지털뉴스 02-2079-3710-4 국방저널 02-2079-3715-6	군947-3710-4 군947-3715-6
사진팀	02-2079-3760-3	군947-3760-3
광고문의	02-2079-3123	군947-312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웰컴 투 뉴욕 2

조명탄

안 영 주
작사가



내내 작업을 했다. 한국에서도 길에 밝히는 스타벅스를 뉴욕까지 가서 굳이 왜 가냐고 할 수도 있었지만 도시마다 스타벅스는 베이커리도 굿즈도 인테리어도 확 다르다. 매일 가던 우리 집 앞의 스타벅스가 아니다. 낯선 도시에서 그런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즐기는 편이다.

이번에 뉴욕서 들렀던 스타벅스는 도서관처럼 칸막이로 분리된 1인 책상이 많아서 혼자 앉아서 노트북 작업하기 편안한 공간이었다. 아침 메뉴도 우리나라에 없는 팬케이크 재질의 빵에 베이컨과 소시지가 함께 나오는 것을 주문했는데 빵의 퀄리티가 정말 한국과 달랐던 건지 들뜬 기분이 이스트처럼 부풀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았다. 뉴욕커들 사이에 이질감 없이 섞여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전광판 위로 J-hope의 신곡 프로모션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그 장면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아내는 다국적 관

광객들을 마주했는데 왠지 나까지 어깨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평범하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다.

몇 년 전 여행에서 이미 유명 관광지지는 돌아봐서 딱히 더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방식의 여행을 좋아한다. 현지인들과 로컬 식당에서 아침 먹고 낯선 거리와 공원을 산책하고 그러다 다리가 아프면 우연히 발견한 동네 카페에서 몇 시간이고 멍때리다 작업할 거 있으면 조금 하고 사람들 구경하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겐 여행이다. 공원이 많고 카페도 많고 예쁜 거리도 많은 뉴욕은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첫 여행은 뉴욕이어야만 했다.

뉴욕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뉴욕커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 ‘이곳에 아담한 집을 사서 서울과 뉴욕을 편하게 오가며 지내면 참 좋겠다’라는 작지만 큰 꿈을 꾸고 있다. 케이팝이 그때도 여전히 흥행 중이라면 여기서 케이팝 강의를 해도 멋진 것이다. 이번 여행에는 그 계획의 확인 겸 답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평범한 뉴욕커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 위주로 구경하며 집값 시세도 들여다보며 더 현지인처럼 지내다 왔다. 다음에 뉴욕에 올 땐 여행이 아니라 이사이길 바라며...

행복의 길

종교와 삶

황 준 혁
해군1함대사령부 법사 소령



이 세상에는 많은 생물, 무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것도 원근을 가지고 우주적으로 보자면 모든 존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꽃이 한 송이 피어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꽃을 계절마다 보는 거라고 또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흘려대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레옹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때는 단지 여섯 번밖에 없었다.” 절대 권력을 지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나폴레옹도 사는 동안 여섯 번밖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큰 장애를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년에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인생의 행복이 소유나 지배와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

은 행복을 외부 환경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으나 헬렌 켈러는 마음에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이 행복할 때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불평불만을 일으키는 성내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신문에 연재돼 호평받은 유명한 상담가 에이비게일 반 부렌(Abigail Van Buren) 박사에게 15세 소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간섭하며 믿어주지 않습니다. 남자 친구들은 나를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반 부렌 박사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편지를 읽은 13세의 소녀가 이런 답글을 보냈습니다. “나는 건

지 못하는 불구 소녀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나는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경영 분야 최고 컨설턴트 데일카네기(Dale Carnegie, 1888-1955)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써 과도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이 웃음 짓게 할 일을 한 가지씩 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기쁨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베푸는 것은 기쁨과 보람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남을 기쁘게 해줄 때 내가 기뻐지며 나에게 사랑이 흘러나갈 때 사랑이 흘러들어온다는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큰 행복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명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질 것입니다. 노력하세요.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남을 위해 항상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